

[사회]

‘지렁이 단팔뿔’ 신고자 말바꿔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으로 국민들의 식품 공포가 극에 달한 가운데 지난 24일 광주에서 발견된 ‘지렁이 단팔뿔’ 사건의 진상이 묘연해지고 있다. 지렁이가 든 단팔뿔을 신고한 제보자 송모(38)씨는 당초 지난 24일 광주 서북구 소재 마트에서 S식품이 제조한 단팔뿔을 사 한입 먹은 순간 지렁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물질은 내용을 이날 광주시 북구청 조사 과정에서 서로 그대로 답했다.

“빵서 나왔다” → “개봉 후 유입된 듯” 하루만에 번복...배경 뭔가

그런데 하루가 지난 25일 송씨는 말을 완전히 뒤집었다. 송씨는 이날 북구청에서 받은 2차 진술에서 전날과 다른 진술을 했다. 송씨는 “지렁이는 단팔뿔에서 나온 이물질이 아니고 내가 일용적 근로자로 일하는 공사장 주변에서 새참을 먹던 중 잠시 빵을 바다에 내려 둔 순간 주변에 있던 지렁이가 빵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어제 구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할 땐 다급하게 일을 하다 온 상태였고 몸 컨디션도 좋지 못했다.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오해를 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송씨는 또 “제조사인 S식품으로부터 포상금이나 금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으며, 아울러 외부의 압력이나 협박

을 받은 적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송씨는 S식품 회사 관계자와 방송사 등을 돌며 제보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씨의 진술 번복을 둘러싼 공공증과 함께 그 배경도 주목되고 있다. 송씨가 직업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말했지만 그의 휴대전화 ‘컬러링’이 모두 유명식품회사 ‘로고송’인 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이물질 제품 3건 유통 중 유입” 잠정 결론

최근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청의 조사를 받던 4건의 제품 중 농심 쌀과자를 제외한 3건은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들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마트 자체산품 즉석밥(동원F&B 생산), 농심 쌀과자 및 용기라면, 동원F&B 녹차에 대해 식약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농심 쌀과자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유통과정 중에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농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데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유통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나머지 3개사는 제조업체로서의 책임이 없는 만큼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3건의 제품은 생산공정에서 해당 이물질이 섞여들었다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조사를 실시한 주요 제품 중 농심 쌀과자만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U대회 유치 기원 남구민 대회

남구민 대회는 황일봉 남구청장과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과 주민 600여명이 참석,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다짐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남구청은 25일 오후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남구민 대회’를 가졌다. 남구민 대회는 황일봉 남구청장과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과 주민 600여명이 참석, 하계U대회 광주 유치를 다짐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수 1,800여명 대운하 반대 모임 발족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이 단체에는 전국 70여개 대학 1천800여명의 교수들이 참가하며 산하에는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검증 작업을 벌이는 운하연구교수단이 운영된다. 운하연구교수단은 각 분야별로 운

하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벌인 뒤 ‘한반도대운하 대국민보고서’를 작성해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선문대에서 “시대착오적이고 타당성 없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철저한 검증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는 것은 지식인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닌 까닭에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로쇠 수액 골다공증 예방 탁월

산림과학원, 생체실험 입증

고로쇠 수액이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탁월하다는 사실이 생체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25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생후 3주 된 쥐들에게 골다공증을 유발시킨 뒤 7주 동안 고로쇠 수액

이나 고갈수 음료를 투여한 결과 고로쇠 수액 원액을 투여한 쥐들의 정강이뼈 굵기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쥐들의 뼈에 비해 배나 굵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쥐의 넓적다리뼈를 X선 촬영했더니 골다공증 유발 후 비조치군, 25% 희석 고로쇠 수액 투여군,

50% 희석 고로쇠 수액 투여군, 고로쇠 수액 원액 투여군, 고갈수 음료 투여군, 정장군의 순으로 뼈의 색을 띄었는데 뼈의 색을 필수록 골밀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강영희 박사는 “고로쇠 수액의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고로쇠 수액을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고로쇠 수액을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고로쇠 수액을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처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March 26th (Wednesday)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weather conditions.

수업시간 떠든 유치원생 교사가 테이프로 입 막아
차등성급급 2억 사회 지원 전교조 광주지부

강진교육청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7살 남자 어린이의 입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인 유치원 교사를 징계기로 했다. 25일 강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강진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이 유치원의 종일반 교사가 유치원생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의 입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는 벌을 세웠다. 이같은 사실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A군의 여동생(5)이 가족들에게 말해 알려졌다. 강진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5분여 동안 길이 5cm, 넓이 5cm의 테이프를 A군의 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박진희기자 lucky@

Large advertisement for Kimyoung University (김영대) featuring '대학편입 NO.1' and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LIVE 강좌'.

Advertisement for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National Support Training Student Recruitment) with details on courses and application procedures.

Advertisement for '7급 공무원 원대비' (7th Grade Civil Servant Exam Preparation) by MDGOAL, listing various subjects and exam dates.

Advertisement for '생활안내 광고' (Life Guide Advertisement) featuring a cartoon ca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services.

Advertisement for '국제외식산업(주)' (International Food Industry Co., Ltd.) celebrating the opening of '스카이뷔페' (Sky Buffet) with photos of the buffet and promotional text.